

2000년대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쉽

홍정길
(목사, 남서울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5년도 못되어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교인성장 숫자가 중단되었습니다. 큰교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교회의 숫자가 더 자라는 교회는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에 말씀이 회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자극적인 종교적인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다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문제는 앞으로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 교회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교회를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우리 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일을 예측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을 고통스럽지만 준비를 시키지 않는 지도력은 가짜 지도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아부하고 만족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도력입니다.

편주) 위의 글은 홍목사의 혀락을 얻어 강의 내용을 풀어 쓴 것이다.

과거에 미국장로교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러면 장로교회였지, 감리교도 아니였고 또 침례교는 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사형을 당했던 미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에게 장로교인은 지옥의 서자 쯤으로 생각됩니다. 그처럼 장로교 전성기가 있었고 장로교 교회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로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년에 300개 이상 줄어간다고 연합장로교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기 총회 프리레이스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우리들도 포메이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품이 다른 품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대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라 사랑하는 네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네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 목적은 아들되신 그리스도의 형상 품을 포메이션 하시기 위해서, 이 품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 품이 가는 세대에 전달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구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자라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는 새벽기도 얼마나 잘했는가, 주일성수 얼마나 잘했는가, 십일조 얼마나 잘했는가, 새벽제단 얼마나 했는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키우는데 있어서 성장이 목표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싫어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목표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가증히 여겼던 바리새인을 목표로 한국교회가 사람을 양육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잘 했는지, 물론 이것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가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성경지식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이 되어가면서 한국교회 성경공부는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공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중구조가 생깁니다. 어떤 구조가 생기는가 하니 원래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삶은 이제까지 살았던 과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두개가 도무지 균형과 조화가 없습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보다 그것이 네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주님의 뜻인가는 더군다나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많이 모였지만 10년 후에는 쓸쓸하게 미국교회나 유럽교회처럼 몇 사람 오글오글 앉아서 모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모여들 때에 우리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때까지 영향들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고 아니하시고는 그 분의 절대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교육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니다. 성령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헌신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더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준비하는 설교가 준비하지 않는 설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입식 성경공부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강의식 성경공부의 약점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장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주입식 성경공부의 장점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잘 조직하고 정리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입식 성경공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공부를 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베델이나 크로스웨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주입식 성경공부의 변형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입식 성경공부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피교육자가 정말 그 말씀을 바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룹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미 훈련되고 준비된 좋은 지도자가 그 분의 정도와 성향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막아주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공부방법입니다. 요즘 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성경공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이 주입식 성경공부와 그룹 바이블 스터디는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옥한흠 목사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를 통해 좋은 샘플을 한국교회에 주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그룹이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개인이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적에 홀로 있을 때에 성경공부는 그러면 그만 쉬어야 되는가? 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성경공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귀납법적인 성경공부로 근래에 전매 특허를 냈던 것은 아닙니다만 프리셉트 성경공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학생선교단체 IVF에서 귀납법적 방법을 가지고 오랫동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바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과 조금 더 다르게, 객관적인 성경공부에 대한 강조가 귀납법적 성경공부라면 큐티는 주관적인, 홀로 성경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한 장 읽고 그 뜻이 뭘까? 그 뜻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뭘까?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러한 간단한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하루 하루를 살게 만드는 성경공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강의식 성경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그룹으로, 7명에서 12명이 모여서 성경공부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귀납법적인 성경공부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를 순종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 이 모든 성경공부 방법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리잡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까지 보지 못한 교육의 한 부분을 터치하고자 합니다. 그것과 리더쉽이 어떤 관계에 있는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

니다. 하나는 formal한 교육이고, 하나는 unformal한 교육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formal이라는 말은 '형식적인'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공식적이다', '형식적이다'하는 교회 교육, 이것은 몇 가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교육이라고 말하는 이런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투자하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약화시켜선 안됩니다. 더 투자하고,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못해 본 것이 하나 있다면 장년 성경공부를 못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 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장년 성경공부가 없으니 썬데이 스쿨(Sunday School) 할 수 있는 장년 성경공부반을 할 수 있게 협력해 주옵소서." 그런데 교회는 모이면 도무지 그 분들을 성경공부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지금 주일학교도 못해서 찔찔 매는데, 그러다가 제가 착안한 것이 학교를 빌리자는 것이었어요. 학교로 하면 몇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주차장이 해결되고, 교육장소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끌고 오는 도중에, 또 학교 강당 빌려서 교회 개척을 해 보니까 또 그 가능성성이 더 깊어졌다가 지금은 기회를 잡아서 중등 중·고등학교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수할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남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은 주일날 밖에 없는데 이 날 우리 남자들은 성경공부를 확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년 전부터 외국에 사람을 공부도시키고, 또 저도 견문을 넓히는대로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장년 성경공부입니다. 제 나름대로 쫓아 다니고 계획해 보고,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충분하게 교육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실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formal한 성경공부를 극대화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 formal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ormal한 교육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육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괴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추적해 보다가 얻은 결론은 ‘아하 보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form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는대로 행합니다. 듣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살았던 대로 삽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unformal Education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unformal Edu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첫째로, 그 장소가 가정입니다. 부모에게서 말 듣고 배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부모가 사는대로 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formal한 교육과 더불어서 발전시키려는 항목에 두었습니다.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어디를 기점으로 사용할 것인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성경적으로 탐구한 것이 있는데 결혼 전부터 시행할 결혼 예비훈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란아이 때부터 출생때부터 교육 시키신 것이 아니라. 대 큰 아담과 이브를 불잡으셔서 결혼시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formal한 교육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배우고,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unformal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Trinity 신학교의 테드 오르같은 사람은 formal한 교육이 한 20% 영향을 준다면, unformal한 교육이 80%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분의 주장이 꼭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 안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쏟아야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농어촌 교회 한 240여 군데를 돋고 있습니다. 단지 돈으로만 돋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열개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휴가를 가족과 함께 그 곳에서 보내는 식으로 지금 까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잡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1,5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그 마을의 한집한집을 쫓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합니다. 또 오전 오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외지에서 와서 좀 새롭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흥미를 갖습니다. 또 밤에는 동네 사랑방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국수·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간증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구원초청까지 합니다. 매일밤 모든 동네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서 전도하고 결과를 철로 만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초청작업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한 번 지나간 다음에 상당한 숫자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락민의 숫자 자체가 작은 시골마을의 수적 성장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갔다 오면 그렇게 뜨거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서 사랑해 보고 복음을 증거해 본사

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또 한 열매를 얻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온 가족이 가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날 그 아까운 바캉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헌신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본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큰 원리 이 unformal한 것에 대한 강조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unformal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자기 부모가 머리에 물려 가면서 논에 들어가서 이웃 사람과 김을 메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몸 전체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보고해 주는 보고 때문에 그 보고회가 꼭 부흥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교육의 실체로서의 부모, 그래서 우리 교회는 formal하게 이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게하는 재료와 방법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성숙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모가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지만 교회가 정말 교육적인 자세에서 있는가도 중요한 교육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교인들은 안 듣습니다. 봅니다. 목사가 떠드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본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본단 말입니다. 교역자끼리 미워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하면 밑에서 웃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알 것은 다 압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모범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메세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 재정을 운영하여야겠습니다. 교회 목표를 세워 봅시다. 말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고, 사시꾼일수록 좋은 말을 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form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시다.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설정합시다.

unformal Education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비공식적인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비공식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메세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역시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삶이 교육적일 때, 목사가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교인들이 볼 때에 ‘참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신다’ 삶은 말이 아닙니다. 리더쉽의 시작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사는 삶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듣는 것은 생각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 그것이 바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했던 복음마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방해자는 바로, 목회자 자신이 됩니다. 여기서 목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쉽을 거기서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Leadership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직선에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갖는 그 리더쉽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직선상에 있는 리더쉽을 가질 때에 그 리더쉽은 힘이 있습니다. 함께 아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도 이런 리더쉽을 가지고 21세기를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

편주

하 해 통
(목사, 벤엘교회)

지금부터 7년 후면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력 등을 비롯하여 종교계의 변화와 세기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분명히 우리는 현재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도 예외는 아니다. 새 세기를 향한 세계 선교와 목회적인 과제에 대한 재정립이 긴급히 요청되는 현실이다. 특별히 교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목회자의 중요성이란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역시 전문성을 지닌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전제하에서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함과 동시에 시급하다고 본다.

1. 급변하는 세계

급변하는 세계를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편주)이 글은 기독교보에 실렸던 글로서 기독교보의 양해하에 실음을 알린다.